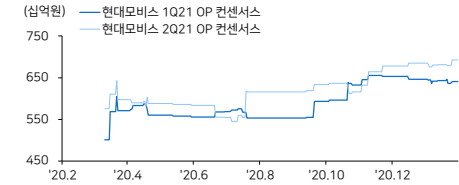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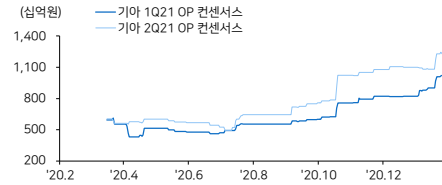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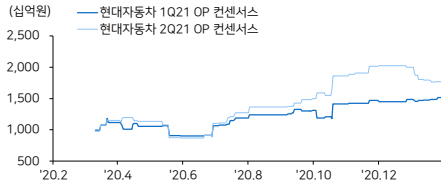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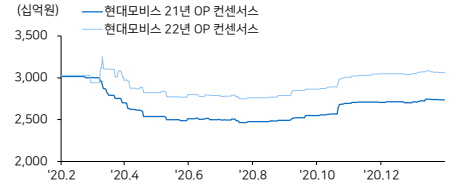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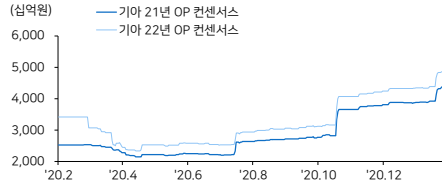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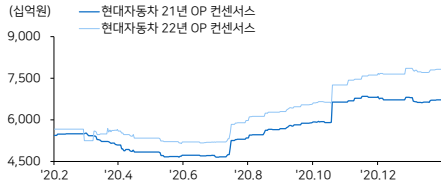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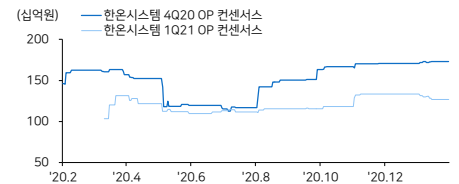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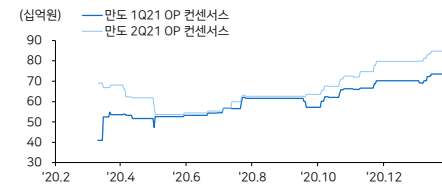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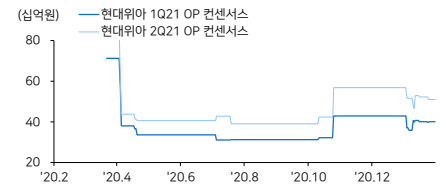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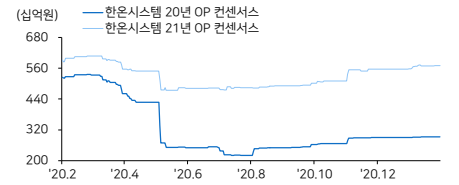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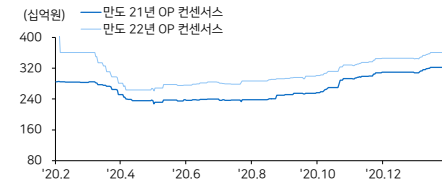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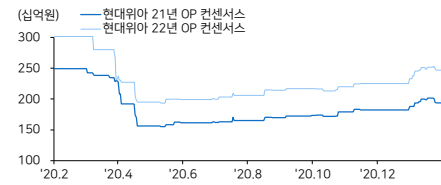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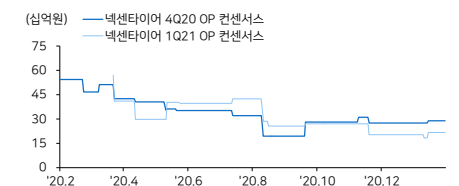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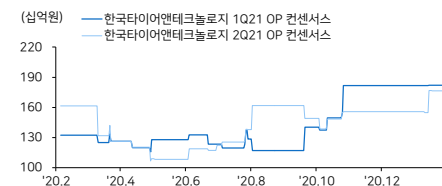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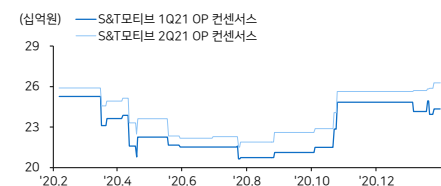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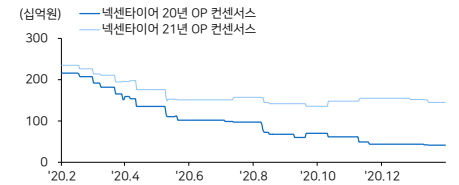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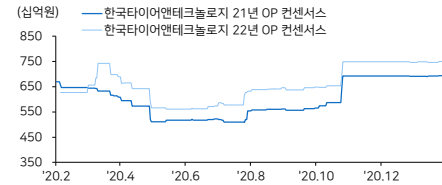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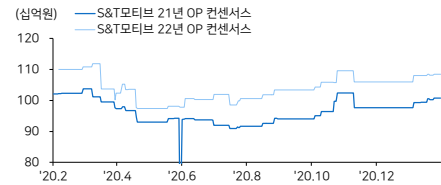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차 아이오닉 5 전기차, 사전계약 1시간만에 1만8천대 돌파 (ZDNet Korea)

현대차 판매지점 네트워크 현황 등에 따르면, 아이오닉 5는 25일 오전 10시 사전계약 시작 이후로 1시간만에 1만8천대 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올해 국내 시장에 아이오닉 5를 2만6천여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음.  
<https://bit.ly/3knjw8m>

### 현대차, '2021포터II' 출시...1705만 원부터 (BizFact)

현대자동차가 안전과 편의성을 개선한 소형 트럭 '2021 포터II'를 출시함. 특히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와 차로 이탈 경고(LDW) 등이 전 트림에 기본으로 장착되는 등, 기존 선택사양으로 운영되던 안전사양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  
<https://bit.ly/3sFIQcX>

### 현대모터에버 등 3사 합병 승인...그룹 지배구조 개편 영향은? (한겨레)

현대모터에버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자동차그룹 스포트웨어 3사의 합병이 최종 승인된 가운데, 업계는 현대모터에버가 향후 그룹 지배구조 재편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중.  
<https://bit.ly/3aQxrkK>

### 반도체 부족 최악은 넘었나...GM "올해 목표 실적 달성할 것" (아시아경제)

GM CFO는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최악의 상황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제시한 목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한다"고 밝힘. 또한 반도체 공급부족 상황에 대해 올 하반기 정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언급.  
<https://bit.ly/3aWdYtT>

### 반도체 문제로 현대차도 '실시간 재고 체크' (중앙일보)

현대자동차가 사실상 하루 단위로 재고 점검에 돌입. 지난달과 비교해 재고 수준이 줄어들었고, 경우에 따라선 자동차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 현대모비스는 현재 실시간으로 반도체 현황을 점검 중.  
<https://bit.ly/2P1X7BV>

### 현대차와 기아, 미국에서 '안전한 차로 평가'받아 (경향비즈)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에 부여하는 등급에 총 17개 차종이 선정됨. 이번에 선정된 글로벌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17개 차종의 이름을 올리면서 2년 연속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  
<https://bit.ly/3kmzmjN>

### 바이든,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해결 위해 행정명령 서명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함. 반도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100일 이내에 검토하도록 지시함.  
<https://bit.ly/3kn2J5v>

### 위기를 기회로...자동차업계, 비대면 판매 서비스 박차 (연합뉴스)

COVID-19로 고객 유치에 비상이 걸린 자동차업계가 비대면 판매 서비스 강화에 속도를 올리는 중.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2025년까지 완전 비대면 판매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임.  
<https://bit.ly/3kqBhUd>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